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천 상 병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바람길은 사통팔달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푸른 것만이 아니다

천상병

저기 저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보는데
푸른 것만이 아니다.

외로움에 가슴 조일 때
하염없이 잎이 떨어져 오고
들에 나가 팔을 벌리면
보일 듯이 안보일 듯이 흐르는
한 떨기 구름

삼월 사월 그리고 오월의 신록(新綠)
어디서 와서 달은 뜨는가
별은 밤마다 나를 보던가.

저기 저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자꾸 보고 또 보는데
푸른 것만이 아니다.

마음 마을

천 상 병

내 마음의 마을을
구천동(九千洞)이라 부른다.
내가 천씨(千氏)요 구천(九千)만큼
복잡다단한 동네다.

비록 동네지만
경상남도보다 더 넓고
서울특별시도 될 만하고
또 아주 조그만 동네밖에
안 될 때도 있다.

뉴욕의 마천루(摩天樓) 같은
고층건물이 있는가 하면
초가 지붕도 있고
태고 시대의 동굴도 있다.

이 마을 하늘에는
사시장철 새가 날아다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흰구름이 왕창 덮인다.

이 마을 법률은
양심이 있을 뿐이고
재판소 따위로
양심법재판소 밖에는 없다.

여러 가지로 지적하려면
만자(萬字)도 모자란다.
복잡하고 복잡한 이 마음 마을이여.

날 개

천 상 병

날개를 가지고 싶다.
어디론지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싶다.
왜 하느님은 사람에게
날개를 안 다셨는지 모르겠다.
내같이 가난한 놈은
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뿐인데
나는 어디로든지 가고 싶다.
날개가 있으면 소원 성취다.
하느님이여
날개를 주소서 주소서.....

만 추(晩秋)

천 상 병

내년 이 꽃을 이을 씨앗은
바람 속에 덧없이 뛰어들어 가지고
핏발 선 눈길로 행방을 찾는다.

숲에서 숲으로, 산에서 산으로
무전여행을 하다가
모래사장에서 목말라 혼이 난다.

어린양 한 마리 돌아오다
땅을 말없이 다정하게 맞으며
안락의 집으로 안내한다.

마리아.
나에게도 이 꽃의 일생을 주십시오.